



## 천호인터그레이션 시찰

- 3월 육계분과위, 60여명 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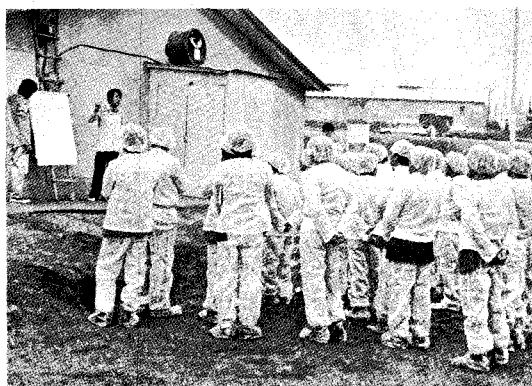
(이계조 회장)

천호인터그레이션 시찰이 육계분과위원을 주축으로 서울시 관계관, 축협 관계자, 축산관계 신문기자, 도계업자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월27일 동두천에서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에 축산회관회의실에서 3월 육계분과위원회를 간단히 마친 후 12시 반경 서울을 출발한 시찰단은 먼저 포천 송우리 소재 송봉농장에 도착, 계사시설을 둘러보았다. 참석자들은 또 천호인터그레이션 직영농장(육용계 CC)인 이곳에서 닭 사육실태, 계사구조, 시설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어 전세버스와 승용차를 이용, 천호도계장에 도착한 시찰단 일행은 천호 임직원의 안내로 도계라인과 가공라인을 둘러보면서 선진국 수준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시설에 놀라와 했다.

한편 이날 천호인터그레이션 사업설명회도 겸하



여 진행되었는데, 이계조회장은 도계장 설립동기, 계획생산의 필요성, 종계육종 현황, 도계처리능력, 도계유통문제 등에 대하여 차트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회장은 이 자리에서 막대한 자금과 모험을 필요로 하는 초현대식 도계장설립을 오랫동안 망설여왔으나, 도계유통 정착은 물론 연계되는 계획생산의 실현, 부화장의 선진화, 종계사육시설의 선진화 등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판단, 용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현재 닭고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52°C 저온탕적, -45°C 급속냉동 시설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요리 개발·홍보 등 닭고기 소비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사정과 관련 브로일러 전망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계조회장은 사료효율이 가장 높은 가축이

닭이므로 브로일러산업의 필요성은 계속 증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소매점에 관해서도 현재의 까다로운 제약조건을 쇼케이스를 갖추는 정도로 완화해줄 것을 희망하며, 우리 여전으로 보아 냉동육 유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계열화에 대해 시종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계열화의 필요성, 계열화 정착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나름대로 점을 쳐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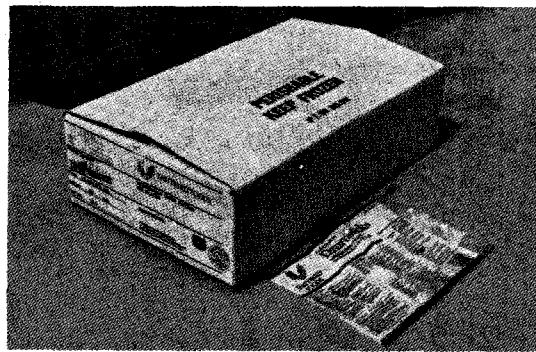
한편 본회에서는 이날의 성과를 토대로 계열화의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 보다 적극적으로 계열화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육계분과위원회(4월 29일 월요일 예정)에서는 농수산부 및 서울시관계관, 생산자, 유통업자 「합동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부정 외래품 닭고기 유통근절 건의 관계기관을 방문 설득도 –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키로 –

최근 무분별한 외제품 선호경향에 편승하여 서울 일부지역인 강남고속터미널 전너(뉴코아 백화점) 앞 수입상가 전문점, 이태원 수입상가, 남대문시장 수입상가(일명 도깨비시장), 일부 고급 아파트단지에 막대한 양의 냉동닭고기(거의 닭다리 부분육)가 유통되고 있어 본회는 4월 초 농수산부와 유관기관에 정식공문으로 단속을 건의했다.

닭고기 냉동육은 현재 수입금지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음은 국가적 차원에서 외화낭비뿐만 아니라 양계산업(특히 브로일러업과 부화업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농수산부, 서울시, 관세청, 치안본부에 유통을 근절토록 조치해 줄것을 건의하는 한편, 본회 황인옥전무는 관계당국을 방문하여 부정외래품 닭고기 유통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단속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앞으로 농수산부, 서울시, 관



△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외래품 냉동닭고기 포장

세청,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철저히 단속키로 약속받은 바 있다.

한편 관계당국에서는 인력관계로 주기적으로 부정 외래품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아무때라도 판매 현황을 목격시 서울세관 밀수신고센타(전화 555-0123, 566-0123)로 신고하면 대기중인 단속반을 출동시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고 목격한 장소, 시간 등 상세한 신고를 협조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시중에는 닭고기 이외에도 쇠고기, 수입갈비(간혹 가짜 상표를 부착한 국산품도 있음) 등이 유통되고 있어 관계당국은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 닭계열화 생산업체 지원 추천

### -대한브로일라, 천호인터넷레이션 -

본회는 금년도 축산물 수급안정과 가격 안정, 유통개선 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닭계열화생산 주체(업체)를 4개 신청업체중 선정기준에 합당한 적임업체 2개를 경기도지사와 합의하여 선정해 축협중앙회에 보고하였다.

대상업체는 축산진흥기금에서 병아리, 사료수급량의 50%이내에서 2억 5천만원까지 응자지원 될 예정이며 정부의 출하조절, 비축지시 이행과 사업추진 및 생산사항 정기보고의 의무를 지닌다.

본회와 경기도에서 합의하여 선정 추천한 업체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소재 대한브로일라(대표 이상윤)와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소재 천호인터넷레이션(주)(대표 김명근)이다.

## 전북지부 춘계 양계강습회 성료

- 고창양계 후원,  
지부회원 등 150명 참석 -



(이한주 지부장)



(신흥종 사장)



(최정옥 교수)

전북지부 '85춘계 양계강습회가 고창양계 후원으로 고창읍성(高敞邑城) 아래에 위치한 고창 로타리 클럽회관에서 지난 3월9일 개최되었다.

이리, 전주, 정읍, 서수, 남원 등지의 지부회원 130여명을 비롯,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습회에서 이한주 전북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강습회 개최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고창양계 신흥종사장과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후, 「이번 양계강습회가 한국양계산업 발전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함은 물론, 선진국 양계 산업 수준에 도달하는데 촉매제가 될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직원소개(고창양계)에 이어 오후 2시에 시작된 「육성계 사양관리」에 대한 강의에서 신흥종사장은 「일반적으로 무창계사는 시설비에 비해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시설투자비와 시험 성적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육추관리의 요점으로 규격에 맞는 닭의 육성, 정강이 길이 체크, 적절한 사료교체, 적정온도 유지 등을 제시했으며 환기, 점등, 디비킹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흥종사장은 계속해서 성계관리에 있어서 계사 이동 준비, 영양 및 사료급여, 에너지요구량, 환기 및 점등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산란지연농장의 예를 들어 그 원인을 지적



하기도 했다.

최정옥(전북대수의대) 교수는 육성시기 질병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감보로 백신, ILT와 ND 백신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참석자들과 질의응답했다.

끝으로 신욱희(고창양계) 과장은 「환기시설은 곧 계사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전제하고 국내에서도 평당 사육수수를 50수 또는 60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온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온도 1°C = 사료효율 1% 이상」이라는 등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고창양계 신림농장을 견학, 환기, 급이·급수시설 등을 들러보았다.

이날 강습회에는 전북 각 지역의 대군·소군 양계업자 대부분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으며, 지부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참석자 모두가 입을 모았다.

고창양계는 이번 강습회를 발판으로 양계협회 타 지부의 협조를 얻어 지역 양계 강습회를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 ● 양계협회 소식

### 계산물유통 정착 위한 공동협의회 개최

- 전남지부회원, 관계관,  
상인, 도계장 대표 참석 -



전남지부(지부장 안명수)는 86,88을 대비하여 전남지역 유통무질서의 낙후성과 밀도계 유통 무질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3월 15일 지부사무실에서 계산물 유통 정착을 위한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지부 육계회원 지역대표를 비롯하여 전남도청 식산국 관계관, 광주시청 축정 관계관, 광주 시청 보사국 청소계 관계관, 위생계 관계관, 상인대표, 도계장대표 등 42명이 참가, 진지한 논의를 가진 이날 회의결과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 현재의 전 균대적인 시설의 보완을 위해 관내 도계장의 시설을 5월30일까지 개수·보완토록 했으며

△ 3월18일부터 도계유통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강력 의법조치(경찰합동) 키로 했으며

△ 타도 병계, 비위생란의 반입도 도민 보건 차원에서 협회(지부), 행정관서 공동으로 단호히 색출키로 했다.

△ 관내 양계산업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상호 동반 협력자세로써 유통선진화에 다같이 동참키로 결의했으며

△ 육계상인, 생산자와의 유대를 더욱 증진시켜 육계가격 현실화에 적극 노력키로 하고, 제반 문제된 사항은 유관기관, 양계협회 본회에 강력히 건의키로 합의했다.

### 종계 및 부화분과 소위원회 개최

지난 3월13일 본회 회의실에서 부화분과 소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계 산업전망 검토와 그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약에 의한 판매와 계약제도의 확립으로 판매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3월 16일부터의 포장육 판매와 5월16일부터 특급도계장 이외는 타지도 반출금지로 소비위축을 감안하여 소비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특히 요즈음 닭다리 유출에 대한 출처의 조사 및 닦고기 수입현황 파악과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한편 4월 회의부터는 매월 2번째 수요일 오후 2시로 변경개최키로 결정되었으니, 부화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

### 해외연수단 귀국

본회 부산경남지부 김중경 채란분과위원장(전지부장)을 비롯, 지부회원들로 구성된 해외연수단이 2월26일 김포공항을 출발했다가 대만, 태국, 싱가폴, 홍콩, 일본 등지를 돌아온후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3월 9일 귀국했다.

• 행선지 : 한국 - 대만 - 태국 - 싱가폴 - 홍콩 - 일본  
- 한국 (11박12일)

• 연수자 : 김중경, 김윤득, 이용호, 정귀홍,  
박재근, 김영철, 정종삼, 김정규,  
김채윤, 이능우, 손종현, 안병호

## 85 계군혈청검사 실시농장

농장명	대표
양지농장	김인영
광암농장	최광락
한국하바드농장	이상윤
동신농장	박준기
홍성농장	정태원
덕일농장	민기원
강남농장	한재덕
교하농장	권복기
유신농장	한명길
새한부화장	길수호
이천축산	백호호
칠성농원	김한호
한일농원	김범홍
천호부화장	차두홍
서림부화장	이계옥
한협축산	천만한
삼화농원	박만영
대전신기농장	준만경
서라농장	이성황
중원농장	윤성환
봉명부화장	배성환
고창양계	차건남
순흥부화장	이건남
홍성농원	김성남
협업오경농장	정선섭
신진농원	김채진

## 용인분회 김종현분회장 피선

지난 3월20일 분회사무실에서 분회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김종현씨를 분회장으로 선출하였다.

## 혈청검사 요원 증원

본회 '85계군혈청검사 희망농장 25개소 확정에 따른 사업으로 혈청검사 요원을 현 강경수, 권옥자씨 외에 박병진, 김영아씨 2명을 지난 3월 1일 부로 증원 보강하였다.



(박병진씨)



(김영아씨)

## 제주지부장에 김기석씨 선임

양계협회 제주지주는 3월11일 제민 신용협동조합 2층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갖고 새 지부장에 김기석씨를 선임했다.



(김기석 지부장)

이날 선출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지부장: 김기석
- 부지부장: 이근성, 고평
- 총무이사: 박한희
- 채란분과위원장: 고경무
- 육계분과위원장: 현정희
- 운영위원장: 강태호, 현명기, 김철수
- 고종협, 고성현, 정태웅
- 이영춘
- 감사: 채희식, 문원희

## ● 양계협회 소식

### 제 2 차 검정위원회 개최 - 검정사양관리지침 결정 -



지난 3월15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18회 산란계 입추에 따른 제반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검정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오봉국 검정위원장(서울농대교수)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록 요약보고 및 업무 추진보고가 있었고, 제18회 산란계 사양프로그램과 방역프로그램 및 사양일지가 결정되어 이 지침에 의거 검정을 실시키로 하였다.

제14회 육용계 검정은 오는 5월 11일에 입란해서 6월 1일 입추시부터 8주간 검정키로 결정, 검정 신청을 받고 있다.

### '85년도 제 1 차 육용계 검정 실시 - 6 월 1 일부터 8 주간 -

본회는 작년에 완공한바 있는 국제규모의 닭 경제능력검정소(경기도 안성군 소재)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8주간 제14회 육용계 능력검정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85년도 제 1 차 육용계능력검정은 검정소 준공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많은 종계장(부화장)의 출품을 바라고 있다.

검정예정 수수는 2천수로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8주간이며 출품신청기간은 4월 15일 부

터 4월 30일 까지이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검정 수수 : 2,000수

• 검정 기간 : 85. 6. 1 ~ 7. 26 (8주간)

• 출품 신청 : 85. 4. 15 ~ 4. 30

• 종란수집기간 : 85. 5. 7 ~ 5. 8 (2일간)

• 출 품 료 : 품종(군)당 100,000원

• 기타 : 종란수집은 검정위원이 직접 출품 농장을 방문하여 2천개 이상의 동일계통 종란 중 1구(품종)당 720개(예정)를 임의 추출함.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본회 사무국 육용계 검정담당자 앞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전화 752-3571~2)

### 美·캐나다 농장현황 소개

#### - 3월 15일 채란분과위원회 -



3월 채란분과위원회가 15일 오후 4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황인옥전무의 협회주요업무보고에 이어 난가전망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후, 바로 「미국 및 캐나다 양계농장의 시설 현황」에 대한 세미나에 들어갔는데, 신흥종(고창양계) 사장은 슬라이드를 통해 미국 디아몬드社의 GP시설을 소개하였다. 그는 이 곳에서는 계사내 온도를 18°C로 유지하며 평당 145 수까지 수용하고 있으며 1동에 10만 수를 수용할 수 있는 4단식 대형계사를 갖추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염두도 내기조차 힘들지만

50만수를 2명이 관리(1인 기계 관리, 1인 닭 관리)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동화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홍종사장은 캐나다 세이버농장 방문담을 전한 후 계속해서 닭 사육시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실례를 들면서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기도 했다.

한편 고창양계 신육희과장은 계사설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환기는 이제 계사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한 계사투자 설비 시 평당 사육수에 따라 손익이 판가름 난다고 말하고, 우리의 현실정에 비추어 평당 50수 이상 사육되어야 하며, 나아가 60수 수준에 이르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닭경제능력검정소 검정착수

-총 15계군 10,659개 입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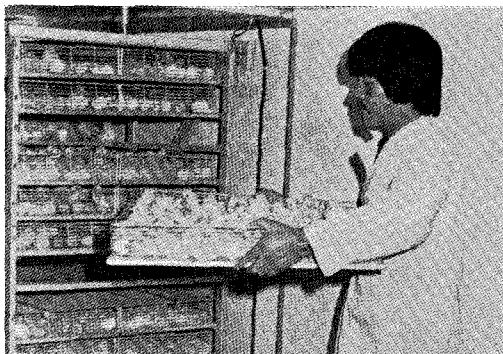
본회 안성 닭경제능력검정소가 신축되어 산란계 제18회 500일 첫검정에 들어갔다.

지난 3월 11일 백색 9구, 유색 6구, 총 10,659개가 입란되어 4월 1일 발생되어 익대부착과 마렉백신접종후 입추가 완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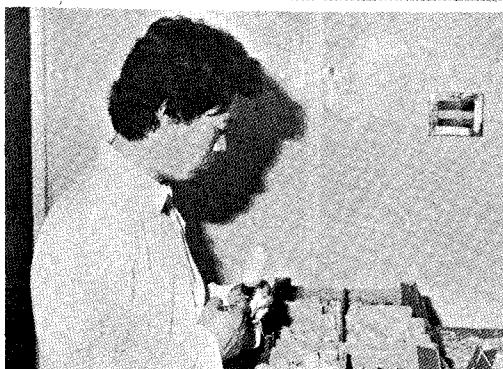
닭경제능력검정소는 18년전인 1966년 서울 공릉동에 처음 개설되었으나 부지가 좁고 시설이 미흡하

여 개설 5년만인 1971년 6월에 경기도 김포로 옮겨 검정을 실시해오다 안성에 국제적인 현대식 시설로 신축하여 첫검정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번 산란계 검정에는 육성율, 육추율, 생계생존율, 성성숙일령, 산란율, 산란지수, 난중, 사료요구율, 체중, 사료소비량, 경제성등이 검정되어 각품종의 평가를 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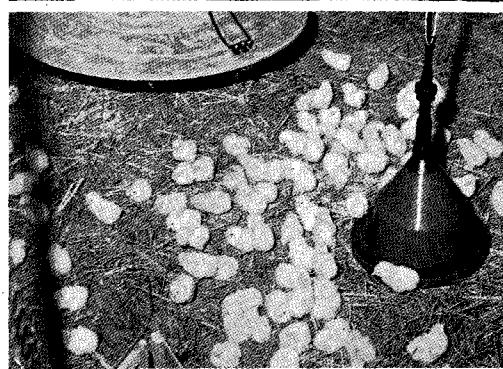
▷  
발  
생



▷  
마렉백신접종



▷  
의  
대  
부  
착



▷  
입  
추

## ● 양계협회 소식

### 수원분회 사무실 이전

수원분회(분회장 강석부)는 3월30일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소 : 수원시 영동 27-4

전화 : 수원 43-4269

### 본지 전국 농고에 무료 배포

본회는 산학협동과 양계업에 대한 지식을 널리 보급코자 지금까지 축산관련대학 및 전문대학교에

발송하고 있는 「월간양계」지를 이번 4월호 (통권 186호)부터 전국의 농업계 고등학교(실업계 포함 축산 관련과가 있는 곳) 까지 확대하여 무료 증정기로 했다.

「월간양계」지는 현재 양계협회 회원 뿐만 아니라 양계사육농가, 전국의 각시·도·군 축산관련 담당관과 축산협동조합 단위조합, 가축위생시험소, 농촌지도소, 축산관련 대학, 전문대학, 유관단체, 관련업계에 광범위하게 골고루 배포되고 있어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 이재근 교수 정년 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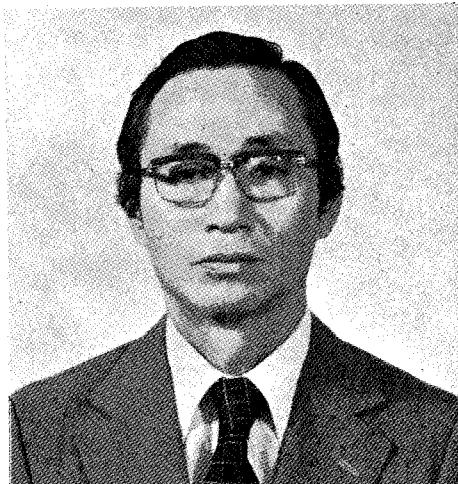
3월27일 고려대 과학도서관에서 퇴임식 거행

30여년간 한국 가금학계를 이끌어온 牛山 李在根 박사(고려대 축산과교수)의 정년퇴임식이 20여년간 봉직해온 고려대학교(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직원, 동문, 재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재근교수는 1951년 청주농대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래 충북대, 고려대에서 35년간 교직생활을 해왔으며, 한국가금연구회장, 한국가금협회 회장,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축산학회장 등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 대한양계협회 고문으로 추대되어 있기도 하다.

### 〈주요약력〉

- 1919년 충북 청원 출생
- 서울대에서 농학박사 학위 취득
- 청주농대 축산학과장·학생과장
- 충북대 축산학과장



- 한국가금연구회 회장
- 고려대농대 축산학과장
- 한국가금협회 회장
-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회장
- 한국가축번식연구회 회장
- 한국축산학회 회장
- 국민훈장, 표창, 공로상 수상 다수